

## 516 담전 3:8-4장,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3장 1-13절을 통해 바울은, 교회 조직과 관련된 문제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교회 조직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행정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행정적인 조직과 체계보다는, 그 조직과 체계를 구성하는 감독과 집사의 상태와 수준이 더욱 중요함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다. 행정적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상태와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는 참된 목회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 주요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감독과 집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여 감독과 집사다워야 한다는 점, 감독과 집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인본주의를 따라 외형적인 조직과 체계에 변화를 주면 교회가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 3:8-13, 집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지침

오늘날 남성의 경우에는 안수집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안수집사가 없으므로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장8절상: 이와 같이 집사들도(남자 성도들도) ...**

→ 한 요건, 한 요건 깊이 생각해야 한다.

**3장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남자 성도들도, 남자 집사들도) 정중(신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자, 믿을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깨끗하지 못한 돈을 탐하지 아니하고)**

**3장9절: 깨끗한(선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 줄을 치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본문은 깨끗한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서 믿음의 비밀이 자리잡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들은 참된 믿음을 결코 가질 수 없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비밀을 갖되, 깨끗한 양심 안에 가져야 함을 바울은 강조한다.

**3장10절상: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

→ 본문은 안수집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선별 과정이 있는데, 시험하여 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오늘날 교회 재정의 증대나 기타 인본주의적 목적을 위해 아무에게나 함부로 직분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명령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3장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자격 요건들을 충족할 때에)**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3장11절上: 여자들도(여자 집사들도) ...

→ 오늘날 안수를 받아 임명되는 권사들로 적용해 볼 수 있다.

3장11절: 여자들도(여자 집사들도) 이와 같이 **정숙(신중)하고 모함(혐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모든 일에 충성된 여성이라야) 할지니라

→ 한 요건, 한 요건 상고해야 한다.

3장12절: (남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잘 다스리는 자여야 할지니라)

이제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2가지 보상에 대해 설명한다. 영적인 차원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2가지 보상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설명한다.

3장13절: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한 자들은(잘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영적인)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확신을) 얻느니라(얻게 되느니라)

3:14-16, 본 서신의 기록 목적과 교회관 및 진리의 핵심 제시

3장14절: 내가 속히 (디모데)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디모데전서를) 네게 쓰는 것은

이제 1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한 교훈과 권면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했음을 밝힌다. 이미 본서 서론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다. 그 설명은 생략하고 15절을 보면,

3장15절上: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

→ ‘하나님의 집’ 줄을 치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3장15절下: ...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니라

→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또 강조표시하자.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니라.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담전 3:15, 새번역) 만일 내가 (에베소교회 방문이)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1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상고해야 하는 바울의 교회관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회관이 있어야 한다.

이제 16절은, 15절 하반절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진리’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님’ 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3장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 16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면,

(담전 3:16, 새번역) 이 경건의 비밀(그리스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싸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 4:1-5, 배교자들에 대한 예언과 다른 교훈(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

4장1절上: 그러나 성령이(성령님께서) (나 바울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

→ ‘후일에’ 줄을 치자. 여기서 ‘후일’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마감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종말의 시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장1절中: ... ★(그러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인 교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참믿음에서 이탈하는 이탈자들이 생길 것이란 말씀이다.

4장1절下: ... (그러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귀신의 교훈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 여기서 바울은 어떤 성도들로 하여금 참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것은 바로 속이는 영과 귀신의 교훈이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성도들의 배교를 일으키는 당시부터 난무했던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의 배후에 사탄과 귀신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도 어떤 성도들의 배도와 배교 현상을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4장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 2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면,

(담전 4:2, 새번역) 그러한 (속이는 영과 귀신의)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인을 맞아서’, 또는 ‘낙인이 찍힌’이라는 표현은 바울 당시에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그것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에 불에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었던 것과 같이, 사탄이 배교한 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낙인을 찍은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은 사탄의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제 3절은 당시 배교한 자들의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4장3절: (이런 자들은) 혼인(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 3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자.

(담전 4:3, 새번역) 이런 자들은 혼인(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표시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자. 믿는 사람과, 특별히 강조표시하자. '진리를 아는 사람'.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은 금욕주의의 전형으로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에세네파의 대표적 특징이었다. 에세네파는 B.C.2세기 이후에 생겨났는데 팔레스틴의 사해 연안 지대에 살면서 엄격한 금욕주의를 장려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에세네파의 금욕주의가 영지주의와 혼합되어 본문과 같은 이단적 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고, 초대교회에 이런 혼합물들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본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당시 배교자들의 다른 교훈은,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다른 교훈의 내용은 독신을 권장하는 것이었고, 음식을 멀리함으로써 금식을 추구할 것과 고기를 아예 먹지 말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처럼 성욕과 식욕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영혼의 거룩과 영혼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이교도인 가톨릭과 불교의 금욕주의 사상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는 결혼제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직접 제정하신 창조원리, 즉 신성한 보편적 진리임을 배워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1:29의 말씀을 따라 채소와 과일,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따라 먹이사슬 아래의 초식동물의 육고기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 물고기 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음식물로 정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러한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4장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죄성,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본문이다. 이미 설명한 결혼과 음식물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4장4절下: ... 감사함으로(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4장5절: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감사)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감사기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욕주의와 같은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바르게 분별하여, 거룩해질 수 있는 신학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1-5절은 바울이 배교자들이 생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배교자들의 다른 교훈에 대하여 밝히며 경계하는 내용이다.

## 4:6-16,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관한 권면

**4장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

**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 6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자.

(담전 4:6, 새번역)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1-5절과 같은 바른 교훈) 형제자매를 깨우치면(깨우치고 양육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선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진리로 성도들을 깨우치고, 양육하면, 그 결과로 목회자 자신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일꾼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이처럼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고 양육하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선한 일꾼으로 양육받게 된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과 과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배우게 되고, 가장 먼저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목회자가 양육을 받는 수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좇고 있는 바른 교훈 즉 진리의 말씀이 양육의 수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제 7-10절을 통해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할 것을 명령한다.

**4장7절上: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시대정신을 따라 인간에 의해 조작된 이야기를 단호하게) 버리고 ...**

→ 이런 것들에 관심과 힘을 사용하지 말고,

**4장7절下: ... 경건(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훈련하고 연단하라)**

**4장8절上: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작은 부분에만) 유익이 있으나 ...**

→ 건강관리라든지, 정기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작은 부분에만 유익이 있으나.

**4장8절中: ... 경건은(영적인 성숙과 성화는, 영적인 성숙은) 범사에(모든 부분에) 유익하니 ...**

→ 별표하자. 영적인 성숙은 모든 부분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연단보다, 이런 영적인 성숙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한다.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일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일이 된다. 그리고 그 유익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한다.

**4장8절下: ... 금생(이 세상)과 내생(장차 올 세상)에 (유익한) 약속이 있느니라(보장되느니라)**

→ 그리고 9절에서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정한다.

**4장9절: 미쁘다(믿을만 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 모든 말씀이 받을 만한 진리의 말씀이요, 바울 사도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7-8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함께 읽어보자.

**4장7-8절: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약속이 보장되느니라)**

**4장9절: 미쁘다(믿을만 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받아들일만한 진리의 말씀이로다!)**

이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도 이러한 약속을 믿고 바로 이 일에 수고하며 전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4장10절: 이를 위하여(이러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이키니 곧 (질적 측면에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구원자)시라**

이제 11-12절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선배 목회자 바울의 명령이다.

**4장11절: 너(디모데)는 이것들(진리의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

→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현재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한 디모데의 명령과 가르침이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4장12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

→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 30대 중반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은 나이가 적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성숙한 삶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라고 명령한다. 오늘날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켜야 하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목회자는 비록 나이가 젊더라도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2절 하반절 별표하자.

**4장12절下: ...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되라)**

→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자.

**(담전 4:12, 새번역) 12.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성도들의) 본이 되십시오(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정절, 또는 순결은 사상과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 신앙적으로 매우 깨끗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깨끗함을 ‘순결’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과연 우리는 사상과 행위에 있어서 깨끗한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과연 우리는 깨끗한 신앙인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철저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3-14절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할 것에 대한 명령이다.

**4장13절: 내가 이를 때까지(에베소를 방문할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일)에 전념하라!★**

→ 별표하자.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념!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예를들면 목회자들이 일반 교회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 중의 하나가 심방이다. 부재자 심방 이런 것에 온 힘을 기울인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비본질적인 일에 힘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전념해야 할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포항주사랑교회가, 또 포항주사랑교회 목회자가 어떤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사랑교회 목회자가 이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자.

**(담전 4:13, 새번역)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여기서 '전념하라'의 원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전념하라! 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낭독한 다음, 낭독한 그것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바울의 엄중한 명령은 느헤미아서 8:8의 제1회 에스라성경강좌의 원리를 생각나게 한다. 교안을 통해 느헤미야 8:8 함께 읽자.

**(느헤미야 8: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목회자가 최우선적으로 열중해야 할 사역은 바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가르치는 사역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목회자가 전념해야 할 본질적 사역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 본질적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권위를 가지게 된다. 14절에서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함을 권면한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접목시켜 설명하는 본문이 14절의 내용이다.

**4장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예언과 함께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 14절을 새번역으로 보자.

(담전 4:14, 새번역) 그대 속에 있는 (가르치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예언과 함께)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14절의 예언은,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안수에 참여한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해주었던 디모데를 향한 권면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장로의 회' 또는 '장로들'은 바울을 포함한 당시 공신력 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4절에 따르면 디모데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이 은사를 함께 부여받았음을 밝힌다. 그러나 디모데가 은사를 부여받은 이 안수식이 정확하게 언제의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해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살펴볼 15절의 '이 모든 일'은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일,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가리킨다. 15-16절 박스로 묶고 별표표하자.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4장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에베소교회 성도들을) 구원하리라★**

→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다.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5-16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자.

(담전 4:15-16, 새번역) 15.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16.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강조표시하자.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디모데전서 3:8-4장의 말씀을 한 주간동안 골방에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실천 : 디모데전서 3:8-4장**

- 인본주의(경영학)을 따라 행정적이고 외형적인 변화를 준다고 해서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다. **교회(그리스도의 몸)를 구성하는 직분자들이 진리를 따라 신앙적·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만이 교회는 변화된다.**
- 오늘날 재정 증대나 기타 인본주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다. **바울이 제시하는 직분자의 조건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제시하는 인본주의적 스펙과는 전혀 다른 **신앙적·도덕적 조건들**이다.
- 직분자는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 **먼저 시험하여 보고 자격 조건들을 충족하여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후에 직분을 맡겨야 한다.**
-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정의한다.
-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밝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참믿음에서 이탈하는 이탈자들이 생길 것**이란 의미이다.
-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성도들로 하여금 참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신다. 그것은 바로 **‘속이는 영과 귀신의 교훈’**이다. 이처럼 성령님은 어떤 성도들의 배교를 일으키는 **다른 교훈의 배후에 사탄과 귀신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다른 교훈은 금욕주의의 전형**으로써 **유대교의 한 분파인 옛세네파(Essenes)의 특징**이다. **이들은 성욕과 식욕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영혼의 거룩함과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가톨릭과 불교의 금욕주의 사상과 흡사하다.
- 바울은 결혼과 음식물의 경우처럼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교훈한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함(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할 것**을 명령한다.
- 바울은 나이가 적은 디모데에게 **신앙적·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성숙한 삶**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지킬 것**을 명령한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명령한다.
- 이것이야말로 모든 목회자가 전념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다.
- 목회자와 교회가 **비본질적인 일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본질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다.